

“기술개발투자, 복지후생강화로 최고의 슬리터생산”

과학성·합리성으로 세계적인·슬리터 업체 추구



▲ 김진오 오성정밀기계 사장

원단과 필름 후가공에 필수적인 슬리터만을 전문생산하고 있는 오성정밀기계(사장 김진오)는 기술개발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슬리터업체 중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오성정밀기계는 1988년 설립된 8년생 어린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8년생 답지않게 기술개발노력과 종업원의 인화로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실력을 넘어선 내실있는 기업으로 소문이 자자한 기술집약형 우수업체다.

얼핏보기에 슬리터는 그렇게 많은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 원단과 필름이 얇고 강한 제품으로 생산되는 현재 추세와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고도의 전문 슬리터만이 이를 후가공할 수 있는 체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업계의 발전추세에 뒤진다면 살아남기 힘든 고기술 기계산업으로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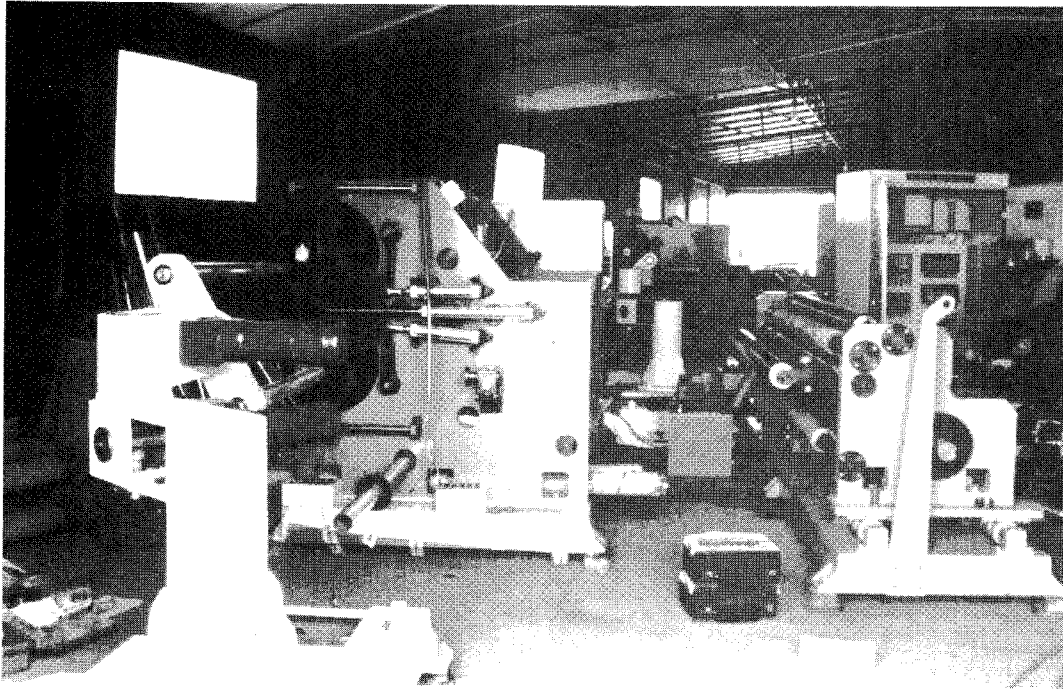
오성정밀기계의 김진오사장은 “원단과 필름 포장원자재들을 마지막 제품화 하는 것이 슬리터입니다. 포장산업은 GNP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러나 슬리터업계가 포장산업의 발전보다 느리다면 원자재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 전체 포장인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슬리터는 포장산업의 발전보다 빠르

게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슬리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술개발만이 살길

오성정밀기계를 방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기계공장 답지않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다는 것과 사장과 종업원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성정밀기계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신의 CAD, CAM시설을 도입하여 설계에서 부터 예비운전까지 컴퓨터상에서 진행할 수있는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개발품의 위험부담을 줄여나갈 뿐 만아니라 조립자가 한눈에 자신의 일을 파악하고 전체일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하고 있다. 그 결과 오성정밀기계가 선보인 일련의 슬리터는 불량률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여 업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슬리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설치하고 싶어하는 품목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한다.

오성정밀기계가 업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즉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과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 속에서 전 오성인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오성정밀기계의 공장내부 모습.

실제로 94년 20억원 남짓한 매출액 중 1억5천만원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다양한 오성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슬리터등 포장기계업체들이 주문자가 요구한 사양에 한하여 생산하는 영세성을 보이는데 반해 오성정밀기계는 OSI01을 중심으로 양산체제를 갖추어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첨단기술은 오성이 제일 먼저 도입하고 만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종업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R&D는 김철웅차장과 설계담당 김현식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D담당자뿐 아니라 17인의 전 직원이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자세로 노력”하는 등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사장은 설명한다.

전문업체만이 살아남아

“포장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비해 사업장이 영세하여 도산하는 기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의 이유에는 영세성 말고도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포장산업이 고기술을 요하는 시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확장과 전문업종의 결여가 영세성과 질저하를 가중시킵니다.”

오성정밀기계가 슬리터만을 생산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우선 슬리터가 후가공이며 포장업계에서 꼭 필요한 고기술을 요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과학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현대 기술이 쌓은 최고의 기술을 포장산업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포장산업, 특히 포장기계산업은 영세한 기업이 많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

다. 그 결과 국내 포장기계중 대당 40억원을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인 대형 슬리터와 같은 기계는 유럽 등 선진국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형슬리터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의 품질을 미덥지 못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품질이 선진국과 비슷하다 할 지라도 후가공이라는 특성상 위험부담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꺼리고 있다. 대부분의 포장기계 생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대기업의 불신때문이라고 김사장은 설명했다.

김사장에 의하면 현재 오성정밀기계의 제품을 비롯해 몇몇 우수한 중소기업의 포장기계업체들이 선보인 제품들은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성능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신한다. 오성정밀기계는 국내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의식을 기술로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오성의 고도성장에 인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일용직 까지 17명의 오성인이 있다. 그중 자가운전자가 11명으로 언제나 오성의 앞마당은 비좁다. 이렇게 오성인이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게 된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즉 오성인 전체가 사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성정밀기계는 사원 각 가정의 안정이 오성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김포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사회복지단체에 자동차를 기증할 정도로 김포지역에 발전에도 관심이 많은 오성이고 보면 보람의 일터, 일이 즐거워 일을 하는 일터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 오성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쉽습니다.” 즉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포장기계업계는 정부 지원의 미비와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고보조, 세제혜택, 선진국과 비슷한 7%이하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힘을 쏟는 중소기업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포장기계업에서 오성정밀기계처럼 한가지 종류의 기계만을 고집하는 전문업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 노력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오성의 기계들

오성정밀기계의 특징은 소비자가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입장의 제품이라는 것이다. 오성 자체기술로 제작된 로봇을 장착하기도 하고, 전자동 제어장치 및 한눈에 작업현황과 고장난 위치를 알수있게 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고 있다고한다.

OS 101 AFC-1200L은 PET, OPP, PAPER등을 슬리팅할 수 있게 설계된 슬리터로 대량생산 시스템이 적용된 오성의 히트작 중 하나다. 오성이 대량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요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더이상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라는 자신감에서라고 한다. 그 성능을 보면 REWINDER는 AIR FRICTION SHAFT를 장착, 정밀한 고품질의 제품을 권취할 수 있고, UNWINDER 및 CONTROL BOX가 기계전면에 장착되어 있어 작업이 용이하다. 제어방식은 D.G.T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버튼 하나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있어 초보자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었다.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면 직접 조립자를 파견 시운전 등을 하면서 작동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품은 납품만하면 어느기업 누구라도 쉽게조작할 수 있어 특별히 직원을 파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장시 어느부분이 고장인지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오성정밀기계가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계는 UNIVERSAL 201과 OS AFC-165OL이다. UNIVERSAL

201은 저 마이크론 소폭 슬리팅 및 콘덴샤용 SLITTING M/C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가의 외제를 수입대체 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성능 또한 우수한 제품이라고 오성정밀 측은 설명했다. 이 기종에는 D.C 및 SERVO시스템으로 TOUCH SCREEN은 선택 사양으로 되어있으며 REWINDER 및 UNWINDER의 TENSION을 메모리화 하여 모든 기능은 ONE TOUCH방식으로 작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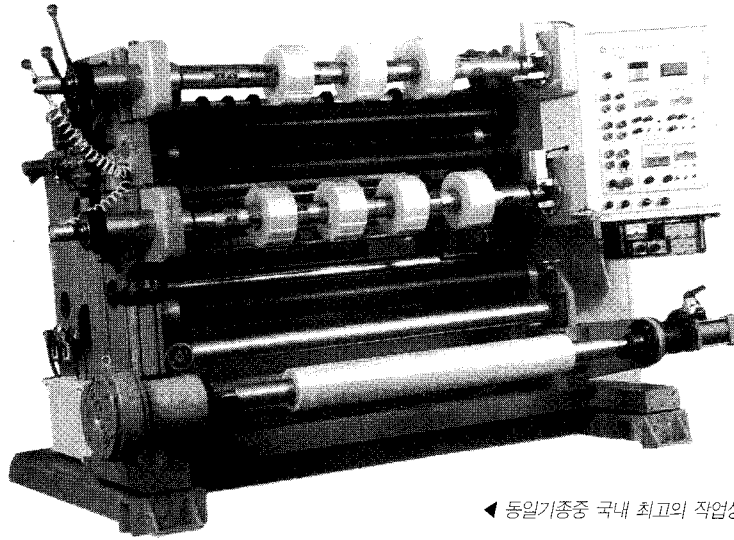
따라서 사용이 간편하여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외제 기계의 분당속도는 150~180mm인데 비해 UNIVERSAL 201의 분당속도는 7~8의 필름일 때에 250~300mm로 작업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OS AFC-165OL은 작업자의 편의와 사용기업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낼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며 설계되었다고 하는 기종으로 모든 방식이 ONETOUCH방식으로 쉽게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의 POWDER CLUTCH 및 BRAKE 방식은 D.C 또는 A.C SEWVO 시스템으로 제작되어 기계의 잔고장이 전혀없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기능 또한 모든 방식이 ONETOUCH(TOUCH SCREEN) 선택사양으로 제작되어 모든 기능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REWINDER는 AIR FRICTION 방식으로 원단 후도 편차의 제품도 권취를 원활하게 감을 수 있게 되어 있다.

UNWINDER 역시 ROD-SELL 방식으로 기존 AUTO TENSION에



◀ 동일기종중 국내 최고의 작업성능을 자랑하는 UNIVERSAL 201

비해 상당한 기능을 보유한 D.C 또는 A.C SERVO 시스템으로 보완되었다. 그리고 UNWINDER는 SHAFT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분당 속도는 350mm로서 350mm고속작업시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작업할 수 있다고 오성정밀측은 설명했다.

REWINDER의 원단 취출은 자동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완료시 기계의 모든 기능이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로봇이 작동되어 원단 취출을 도와주는 기능을 갖게 된다.

미래로 가는 오성정밀기계

금년만해도 파우더 크러치 파우더 브레이크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모터를 장착하여 100%국산화를 이룩했다고 한다. 또한 리와인더 에어 후랙션 및 터치 스크린과 자

동제어 로봇을 장착한 제품과 기능 메모리 타입 신모델 개발을 완료 금년내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95년도 제품의 특징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외제품을 상대로 만듦으로 성능과 가격경쟁력면에서 앞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김진오사장은 전망했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과 고부가 대형슬리터를 양산하기 위해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새로 설립될 슬리터 전문기계회사는 4m이상의 대형슬리터만을 만들어 세계적인 슬리터 전문기업을 발전할 발판이 될것으로 기대된다.